

DIOCESE OF SAITAMA

TOKIWA 6-4-12,
Urawa-ku,SAITAMA city
〒330-0061, JAPAN
TEL:048-831-3150
FAX:048-824-3532



가톨릭 사이따마교구

さいたま市浦和区
常盤 6-4-12
〒330-0061
TEL:048-831-3150
FAX:048-824-3532

2009년 신년 주교 메시지

신자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사이따마교구 형제자매 여러분께

성탄절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아울러 신년 인사도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께서는 이번 성탄절과 설날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여러분께서 각자의 본당에서, 또한 각 블록 안에서 공동체를 소중히 하셨다는 것과 소외된 이들을 소중히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 마음으로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협동선교사목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브라질 이민 100주년 기념제, 188 순교자의 시복식 등이 거행되었습니다. 신년 2009년에는 블록 대항전 축구대회, 교구대회, 정의와 평화 협의회 사이따마 대회 등의 행사가 거행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 안에서 공동체, 블록간의 나눔의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사회는 미국의 금융위기에 의한 불황, 고용에 대한 불안,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 등, 여러 종류의 불안감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한 생활일수록 더욱더 하느님을 신뢰하며 생활해야 함을 의식야만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행동으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참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체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타이틀로 인용한 사도행전 2 장 46 절, 47 절은 초대교회의 신자들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전반부에는 신자들이 마음을 하나로 해서 성전에 모였다고 적혀있습니다. 성서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느님을 찬미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미사 안에서 「말씀의 전례」로서 현재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신자들이 몇 개의 집에 모여, 공동체로서 빵을 나누어 식사를 함께 하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미사의 「성찬의 전례」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체를 나누어 모시고 있습니다. 바자나 축제가 있을 때에는 식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말씀」과 「성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 미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또한 부활절, 성탄절, 신년을 맞이해서 모여, 초대교회의 신자들처럼 똑같이 하느님께 찬미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만 명의 순교자를 탄생시킨 공동체>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보다 한층 풍요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188 명의 순교자의 시복식으로부터, 여러분과 함께 배운 것들 안에 그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00 년 전에 2 만 명이나 되는 순교자를 낸 그리스도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신자는 40 만에서 60 만 정도였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20 명에서 30 명 사이에 한 사람이 순교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강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2 만이라고 하는 순교자의 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강한 신앙만으로 설명하는 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강한 신앙이 있었기에 그야말로 많은 순교자가 생겨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되겠지요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볼까요? 당시에는 말씀의 전례가 거행되고 있었습니다마는, 미사는 없었습니다. 성체나 사제를 기다리거나 바라면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매주 모였던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한지요?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나눔」입니다. 끼리스탄(초대 일본 그리스도교)시대의 공동체는 사제가 없었기에, 신자가 역할분담을 철저히 하고,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떠한가요? 신자들끼리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있는지요? 물론, 끼리스탄 시대와 공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하고도 공통되는 부분입니다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 신자가 매주 모이는 것, 말씀을 경청하는 것, 언제나 하느님께 찬미 드리는 것 등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 나눔이 공동체를 풍요롭게 한다>

사제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공동체의 역할을 신자 모두가 주체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협동선교사목의 기본입니다. 거기에, 성서를 근거로 한 나눔이 있다면, 공동체는 보다 강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나눔은 가정 안에서, 때로는 가정집회라고 하는 형식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노인들의 모임도 필요하겠지요? 교회의 청소들 위해 모인 시간 전후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교회 울타리를 넘어선 친구들의 모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청년들의 모임에서도 성서를 더욱 활용하여 나눔을 가져주십시오. 물론, 각각의 모국어에 의한 나눔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짜내서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성에 응해서 사제나 수도자를 초대해 함께 성서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서를 근거로 한 나눔은 지금까지 교구차원에서 권장하였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적은 인원의 모임을 만들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작업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는 보다 커다란 은총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랑, 믿음, 그리고 참된 희망을 키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에 의해 살게 되는 은총 풍부한 새해가 되도록 축복을 보내드립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이 여러분께 내리소서.

2009년 1월 1일

가톨릭 사이타마 교구

주교 마르셀리노 따니 다이지(谷 大二)